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방안 -천안시를 중심으로-

Plan of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for the Resolving the Regional Conflict
-focus on the case of Cheonan-

박종관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Jong Gwan Park(633127@hanmail.net)

요약

본 논문은 지역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지역갈등해소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배경, 사회자본의 기능과 구성요소, 지역갈등요인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분석변수를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은 크게 사회자본과 지역갈등을 대칭으로 하고 인적요소를 독립변수로 놓은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빈도분석 결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자본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 구성요인과 지역갈등요소인 지역이기주의, 지역참여, 지역문제 정도가 각각 결정계수 5.1%, 5.5%, 1.6%로 나타났으며, F 값은 4.030, 4.351, 1.194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자본형성이 높을수록 지역갈등 정도는 낮아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형성이 지역갈등 해소에 상관성이 많음이 증명되었다. 사회자본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자지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이 취약한 20대, 30대에 대한 사회자본 형성 전략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사회자본 | 지역갈등 | 이기주의 | 참여 |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resolving the regional conflict method through the community capital formation. For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the social capital, function of the social capital and component, and regional conflict factor were organized. In addition, it analyze empitically through the survey.

First, in order to resolve the frequency analysis result regional conflict,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was exposed to be important. Next,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the factor of social capital and the local egoism, the local participation, and the problem of local areas, each, it was expressed a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5.1%, 5.5%, 1.6%, and F value showed up as 4.030, 4.3,51, 1.194. This demonstrates that it is decreased the regional conflict as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is high. That is,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was proved at the resolving the regional conflict that there was lots of the correlation. The community and penis organizationThe local residents should cooperate together and it should try. Particularly, the 20 generations and 30 generations in which the social capital is weak,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strategy about the 20 generations and 30 generations should be studied.

■ keyword : | Social Capital | Regional Conflict | Party | Egoism | Participation |

I.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갈등을 빼놓고 그 어느 것도 논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발전과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고른 균형개발보다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한 결과 지역 간 이기주의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과 함께 나타난 지역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다. 군부정권부터 불어온 근대화의 바람이 더욱 가속도가 붙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적 측면이 눈에 띄는 성장을 한 반면 사회자본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성장하여 지역 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고도성장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종합 계획적 노력에 의한 국민적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자본의 대한 기능을 몇 가지로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정보공유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 계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셋째, 개인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역할을 통해 능률성을 가져 오게 한다. 넷째,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자본형성은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형성이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요소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천안시는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과 인구분산 정책으로 인해 많은 물리적자본과 인적자본이 유입되면서 빠르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사회자본형성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뤄졌기 때문에 지역 간 마찰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경제발전·도시발전 등으로 경제성장만을 강조했던 우리나라는 인적자본과 물질 자본은 형성하였지만 사회자본형성을 이루지 못했다. 천안시는 천안시내에서 뿐 아니라 인근 아산시와도 여러 가지 지

역갈등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자본이 지역 갈등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자본형성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1)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자본은 1890년대에서부터 조금씩 사용되어 왔지만 Colman, Bourdieu, Patnam의 등장과 함께,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왔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규범, 네트워크, 신뢰의 등의 요소로 구분되어지는데 이와 관련된 사회자본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Putman(1993)[2]은 사회자본을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 및 현동을 촉진하는 신뢰·규범·네트워크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하면서 협력과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경제적 자본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박희봉·김명환(2000)[3]의 경우에도 사회자본을 사회 내 인간의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사회자본이 개인과 사회의 공식·비공식적 모든 활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의 발전과 퇴보에 영향을 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축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특정한 한 가지의 요소를 강조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첫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네트워크는, Burt(1992)[4]가 사회자본이란 한 네트워크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 연결과 연결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자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하고 후자는 특정인에게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Coleman(1988)[5]은 사회자본을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조직 내 네트

워크의 형성은 정보와 지식의 전달과 공유를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한 구성원들의 접근과 참여를 조장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6][7].

둘째, Fukuyama(1995)[8]는 신뢰를 특정사회 또는 사회의 특정 부문에서 신뢰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자본은 가장 작으면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인 가족에서 구현될 수도 있고, 가장 규모가 큰 국가와 여러 집단들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ourdieu(1986)[9]는 사회자본을 상호 친밀성 내지 인식의 관계를 제도화 한 형태로 의미하는 지속적 네트워크의 소유 정도와 관련지어진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결합체로 생각했다. Lin(2001)[10]은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였다.

셋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혜성이라고 하면서,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은 횡금률과 같은 것으로 사회자본의 생산적 요소라고 본다[11].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동일한 인식으로서 규범은 조직행동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고, 조직의 가치, 문화 등을 촉진시켜주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조직의 문제해결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12]. 그리고 구성원들과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조직의 자산으로 결합·축적될 수 있도록 한다[13].

2) 지방정부간 갈등과 님비현상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개념정의는 갈등에 관한 일반적 개념정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14][15]. 즉, 지방정부간 갈등을 상호배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복수의 당사자 간의 가치 지위 권력 및 희소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을 유발하는 비선호시설은 혐오성·위험성·순수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16]. 첫째, 혐오시설은 해당 지역의 고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 누구에게나

불쾌감 더러움 등의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부수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해 다른측면의 부의 영향을 초래하는것을 말한다.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 종말처리장 화장장 등이 여기 속한다. 둘째 위험시설은 그 시설의 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주변 지역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거나 그자체가 총기 또는 폭력 등을 연상시킴으로서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주유저장시설,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교도소, 구치소 등이 여기 속한다. 순수공익성시설은 그 지역의 고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소득분배적 측면이 많은 것이지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면서도 혐오성이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성역화사업, 문화시설, 상수도보호구역, 보건소 등이 여기 속한다.

2. 연구모형

앞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사회자본과 지역갈등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독립변수인 성별, 연령, 거주기간, 직업,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자본과 지역갈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분석틀을 정립하였다¹⁾. 이러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중심으로 측정도구를 도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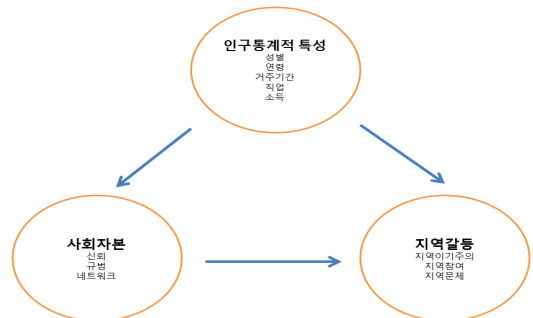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본연구의 가설은 “사회자본은 성별, 연령, 거주기간, 직업, 소득 유입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지역갈등의 정도는 성별, 연령, 거주기간, 직업, 소득 유입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회자본 정도에 따라 지역갈등 정도가 달라 질 것이다.” 등이다.

III. 조사설계 및 분석결과

1. 조사설계

본 연구의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다. 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2년 10월 22일 ~ 2012년 10월 29일 총8일간에 걸쳐 개별 면접방식을 통해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44부 중 유효한 230부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의 일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기초 조사 관련하여 참여자의 성별로는 남성 56.5%, 여성 43.5%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는 20대 22.2%로 가장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로 조사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은 20년 이상 40.4%, 15년~19년 21.3% 10년~15년 14.3%로 조사대상의 과반수가 천안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33%, 자영업 26.1%, 학생 18.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은 300~400만원 미만 21.7% 200~300만원 20.0% 100~2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정이 30% 가까이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30	56.5
	여성	100	43.5
연령	20대	51	22.2
	30대	48	20.9
	40대	46	20.0
	50대	49	21.3
	60대 이상	36	15.7
	거주기간	1년 미만	3
1년~4년		27	11.7
5년~9년		25	10.9
10년~14년		33	14.3
15년~19년		49	21.3
20년 이상		93	40.4
직업	농업/축산업/임업	13	5.7
	회사원	76	33.0
	학생	42	18.3
	주부	11	4.8
	자영업	60	26.1
	전문직	5	2.2
	기타	23	1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1	9.1
	100~200만원 미만	35	15.2
	200~300만원 미만	46	20.0
	300~400만원 미만	50	21.7
	400~500만원 미만	15	6.5
	500~600만원 미만	32	13.9
600만원 이상	31	13.5	

2. 분석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성

표 2.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변수 명	항목수	Cronbach의 알파
신뢰	5	.827
규범	4	.762
네트워크	4	.796
지역 이기주의	4	.259
지역 참여	4	.907
지역 문제	5	.698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Alpha에 의한 신뢰도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²⁾.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지역이기주의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에서 0.698에서 0.907까지 비교적 높게 나타나 문항사이에 높은 연관성을 입증하였다. 세부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빈도분석

먼저 신뢰에 대한 빈도분석이다. 신뢰에 대한 조사 결과는 q1-1의 “나는 친구와 가족을 신뢰한다.”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의 응답이 나왔다. 이 중 가장 낮은 수치의 문항으로 q1-5의 “나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를 신뢰한다.”라는 조사 결과로 천안 시민들은 가족과 친구를 가장 신뢰하고 지역의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신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량				
		q1-1	q1-2	q1-3	q1-4	q1-5
N	유효	230	229	229	228	229
	결측	0	1	1	2	1
평균		4.3435	2.9956	2.8079	2.6535	2.6419
표준편차		.94353	1.06168	.96324	.97463	.96117

2) 신뢰도 계수의 적정수준을 판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으며, 0.7이상이면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0.8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Hail은 요인적가치가 의미를 갖기 위한 기준으로 0.3이상이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며, 0.4이상이면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며, 0.5이상이면 실질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규범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규범에 대한 인식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이상의 응답이 나타났다. q2-1의 “나는 법을 중시한다.”는 문항과 q2-3의 “규범을 지키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q2-2의 “우리지역 주민은 법을 잘 지킨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천안시민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준법정신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규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량			
		q2-1	q2-2	q2-3	q2-4
N	유효	229	229	229	229
	결측	1	1	1	1
평균		3.8253	2.9389	3.9520	2.9607
표준편차		1.03240	.98485	1.05646	1.12905

셋째,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결과 이다.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q3-4의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많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른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가장 낮은 수치의 응답은 q3-3의 “방문하는 이웃집 수가 많은 편이다.”로 나타났다. 천안시민들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이웃과의 네트워크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네트워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량			
		q3-1	q3-2	q3-3	q3-4
N	유효	230	229	229	230
	결측	0	1	1	0
평균		2.9522	2.7074	2.6157	3.7391
표준편차		1.40566	1.36914	1.46925	1.15284

넷째,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설문결과는 q4-2의 “공공 및 편의시설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q4-3의 “균형발전보다 우리 지역의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문항이 높은 수치의 응답이 나타나 q4-1의 “본인지역에 혐오시설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라는 문항이 평균이하의 응답이 나타났으며, 천안시민들에게 님비(NIMBY)현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q4-4의 “천안시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응답이 평균이상의 응답으로 나타나 천안시민들은 평균 이상의 지역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량			
		q4-1	q4-2	q4-3	q4-4
N	유효	230	230	230	230
	결측	0	0	0	0
평균		2.4391	4.0478	3.3435	3.1130
표준편차		1.14199	.93565	1.10154	1.11571

다섯째, 지역 참여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지역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q5-2의 “천안 지역에 현안문제 등 지역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q5-1의 “천안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문제에 대한 참여 및 시민단체 참여 의향을 물어보는 문항이 낮게 나타나 지역의 현황 및 문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참여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지역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량			
		q5-1	q5-2	q5-3	q5-4
N	유효	230	230	230	230
	결측	0	0	0	0
평균		2.9826	3.0130	2.7478	2.8000
표준편차		1.26755	1.23797	1.18832	1.16124

여섯째, 지역 문제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지역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고른 응답이 나타났다. 그 중 q6-1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q6-5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생각한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천안시민들은 교통 문제와 지역 간 격차를 가장 큰 지역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q6-3의 “교육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나 시민들의 천안시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지역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량				
		q6-1	q6-2	q6-3	q6-4	q6-5
N	유효	230	230	230	230	230
	결측	0	0	0	0	0
평균		3.7739	3.5870	3.3913	3.4130	3.7609
표준편차		1.11411	1.04852	.87862	.85079	.90087

3) 회귀분석

(1) 사회자본이 지역 이기주의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지역갈등 요소인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결정계수는 5.1%이며 F값은 4.030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지역 이기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신뢰(베타값 .106) 규범 (베타값 .004), 네트워크 (베타값 .133) 등 모든 구성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지역 이기주의가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사회자본이 지역 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지역갈등 요소인 지역 참여에 대한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지역 참여에 대한 결정계수는 5.5%이며 F값은 4.351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지역 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신뢰(베타값 .115) 규범 (베타값 .083), 네트워크 (베타값 .097) 등 모든 구성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지역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사회자본이 지역 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지역갈등 요소인 지역 참여에 대한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 참여에 대한 결정계수는 1.6%이며 F값은 1.194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지역 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신뢰(베타값 -.110) 규범 (베타값 .034), 네트워크 (베타값 -.052) 등 모든 구성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자본이 지역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지역 이기주의, 지역 참여, 지역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안시는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발전방안

지역갈등 해소방안의 조사결과 다양한 분야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천안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개선방안은 q7-5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q7-2의 “지방정부와 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한 시민교육 활성화”, q7-3의 “봉사단체 활성화”, q7-6의 “지역축제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q7-1의 “지방정부의 공공재의 효과적인 공급”, q7-4의 “지역신문 구독 확대 등 지역언론 활성화”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지역갈등 해소 방안

		통계량					
		q7-1	q7-2	q7-3	q7-4	q7-5	q7-6
N	유효	228	226	228	228	228	228
	결측	2	4	2	2	2	2
평균		4.0921	4.1770	4.1184	3.7368	4.1930	4.1096
표준편차		.89803	.93552	.98402	1.21701	1.04420	1.09516

표 9. 사회자본과 지역갈등요소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지역 이기주의			지역 참여			지역 문제		
		B	β	t값	B	β	t값	B	β	t값
사회자본	신뢰	.084	.106	1.389	.164	.115	1.514	-.094	-.110	-1.416
	규범	.030	.0040	.524	.110	.083	1.078	.028	.034	.440
	네트워크	.074	.133	1.778	.096	.097	1.298	-.031	-.052	-.679
F		4.030			4.351			1.194		
R제곱		.051			.055			.016		

1)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심익섭(2002)[17]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6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특화원칙·주민 중심의 원칙 등의 원칙에 근거한 주민센터의 합리적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여가활동, 지역복지 향상기능, 주민편의기능, 자치활동기능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구성이다. 넷째,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강화, 정부차원의 홍보전략, 자체 재원확보 방안마련, 프로그램과 연계된 자체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재정건전화 및 적극적 홍보 등이다. 다섯째, 지방자치-주민자치-민관협력체계화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문적이고 활동적이며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전문가가 운영하는 특색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을 성숙한 민주주민으로 성장시키는 정치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지 역할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과 방안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이다.

2)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강영혜 외(2011)[18]는 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8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최소기준 합의를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원칙의 명료화를 위해 교육기관에서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등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간의 자발적 교육-학습활동을 추동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지원청-학교 차원의 비전 정립 및 공유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 풍토 및 교육환경 전반의 민주화이다. 학교에서의 민주적 교수-학습 환경과 함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정비이다. 여섯째, 교사의 민주 시민교육 역량강화이다. 일곱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모(가정교육)의 영향과 역할 강화이다. 이를 위해 학

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시민단체와의 협력이다.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3) 지역 봉사단체의 활성화

최용환·주효진(2010)[19]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5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이다.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 관리, 자원봉사활동 관련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영역의 적극적 개발,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지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사후관리 과정이다. 직원들의 관리 및 지도감독,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 자원봉사의 당초 목표대로 달성도 평가 및 문제점의 시정·보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이다. 재해·재난이 발생한 이후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참여단체와 기업체에 자원봉사자 지원, 활동진개 및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와 사회보장과의 연계이다.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보전,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적용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후에 장애 혹은 노인연령에 도달했을 때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돌봄바우처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회관 건립 등이 필요하다.

4) 기타 활성화 방안

첫째로 지역축제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고취이다. 서철현·고호석(2009)[20]는 지역축제 개최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일정한 지리적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의 유대를 통해 지역주민들 간의 접촉이 잦아지고 공통된 생활의 경험을 나누게 되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이 형성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면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둘째, 지방정부의 각종공공재의 효과적 공급이다. 즉,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역 사회에 필요한 각종 공공재화를 공급하여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이 공동체의식형성에 중요한 역할을[21][22]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등에서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로 지역신문의 구독이다. 장수찬(2005)[23]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주어진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만연한 문제를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나 협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지역신문 구독이 지역공동체 내에 사회적 자본인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신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다양화 되어가는 지역갈등 문제를 사회자본과 같은 보다 질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연구이다.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형성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지역갈등해소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자본의 기능과 구성요소, 지역갈등요인을 정리하였다. 더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지표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천안시주민들의 지표 및 세부 지표별 천안주민들의 의식을 보기 위함이다. 그 결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자본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과 지역갈등요소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자본 구성요인과 지역갈등요소인 지역이기주의, 지역참여, 지역문제 정도가 각각 결정계수 5.1%, 5.5%, 1.6%로 나타났다. F값은 4.030, 4.351, 1.194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자본형성이 높을수록 지역갈등 정도는 낮아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자본 형성의 요건은 사회자본 형성 전략의 연구를 통해 점차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갈등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자본형성이 지역

갈등 해소에 많은 상관성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특히 사회자본이 취약한 20대, 30대에 대한 사회자본 형성 전략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천안지역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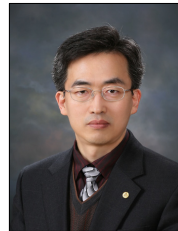
- [1] 박종관, 이창기, "도시지역 사회자본의 실태와 증진에 관한 연구: 대전·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2호, 2005.
- [2] R. Putnam, "The Propero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13, pp.35-42, 1993.
- [3] 박희봉, 김명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pp.219-237, 2000.
- [4] R. S. Burt, *Structural Holes :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5] J. S. Coleman, "SocialCapital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 lo fSociology, Vol.94, pp.95-120, 1988.
- [6] D. Krackhardt, "The strength of strong ties," In N. Nohria & R. G. Eccles eds., *Networks and Organizations : Structure, form and action*, pp.216-239, Boston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2.
- [7] R. S. Burt, *Structural Holes :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8] F. Fukuyama, *Trust: The social val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 [9] P. Bourdieu,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s.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6.
- [10] N. Li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11] R. Putnam, "The Propero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13, pp.35-42, 1993.
- [12] M. A. McFadyen and A. A. Cannella,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Creation: Diminishing Returns of the Number and Strength of Exchange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7, No.5, pp.735-746, 2004.
- [13] R. J. Boland and R. V. Tenkasi, "Perspective making and perspective taking in communities of knowing," *Organization Science*, Vol.6, pp.350-372, 1995.
- [14] 강용기, "정부간 관계(IGR)의 거버넌스 (Governance)-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2호, 2004.
- [15] 박호숙,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협상론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제2호, pp.359-378, 2001.
- [16] 경기도연구단,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광역 행정 협력방안 : 대상시설별 유형화를 중심으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연구논문집, 1991.
- [17] 심익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2호, 2002.
- [18] 강영혜,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11.
- [19] 최용환, 주효진, *충청북도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2010.12, 1-100 충청북도 자원봉사활성화, 2010.
- [20] 서철현, 고희석, "지역축제 개최지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지역애호도의 영향관계- 2009 성주 참의축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3권, 제1호, pp.447-466, 2009.
- [21] 임정호, *사회자본과 지방자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0, 2001.
- [22] 장수찬,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 공동체의 전개 : 전민동 주민의 사회생활 및 정치생활의 구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논총*, 제23집, 제2호, pp.303-333, 2005.
- [26] 박희봉, 김명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제4호, pp.219-237, 2000.

저 자 소 개

박 종 관(Jong-Gwan Park)

정희원



- 2009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13년 현재 :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 2010년 1월 ~ 12월 31일 : 서울 행정학회 부회장
 - 2008년 12월 ~ 2013년 2월 : 대통령소속지방분권위원회 실무위원
 - 2012년 1월 ~ 12월 12일 : 한국공공행정학회장
 - 2010년 3월 ~ 현재 :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
- <관심분야> : 구역개편, 성과관리, 사회자본, 정부기능